

방재전문인 양성

상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일반가공기술, 압연기술 정도이며, 설계 등 핵심 기술은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을 100으로 했을 때 절반수준밖에 안된다고 한다. 1차금속합금기술은 40%, 화학합성은 55%, 기계설계는 60%, 기계자동화 기술은 30%, 전자설계는 50%, 섬유염색처리기술은 45% 수준이며, 특히 핵심설계기술은 40~60%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요부품을 사오거나 고가의 기술료를 지불하고 제품을 만들어 팔자니 제대로 경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. 또한, 수출부진의 원인으로 환율, 임금상승, 노사분규 등이 거론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뒤떨어진 데 있다고 한다.

국내유일의 종합방재 전문기관으로서의 우리 협회의 점검기술과 방재기술의 수준은 어떠한가? 초창기와 비교할 때 장족의 발전을 했는가? 아니면 물량의 폭주에 밀려나 담보상태를 저습하고 있는가?

특수건물은 '84년말 23,214건이었으나, '89년말에는 4만5천여건을 넘어 섰으며, 규모면에서도 연면적 10,000m² 이상 건물 및 11층이상 고층건물은 '84년에 각각 1560동 및 1476동 이었으나 '89년에는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. 이와같이 특수건물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고층화·대형화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.

'89년에 특수건물의 화재발생은 공장이 151건, 4층이상이 229건, 공동주택이 222건, 시장 등 기타업종이 51건이 발생하여 총화재건수는 653건으로 나타났다. 재산피해는 단연 공장이 가장 많아 총재산피해액 9,933,942천원 중 63.8%에 해당하는 6,333,752천원의 손실을 입었고, 4층이상은 1,590,438천원, 공동주택은 809,115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.

우리는 이러한 현실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?

협회의 기술직원들은 자신이 의식하던 못하던 방재 Engineer로서의 책무와 사회적 소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. 그리고 현실여건과 시대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에 적응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. 방재전문인으로서의 식견과 능력을 갖추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.

협회는 이번에 1인다기화 교육을 마감하고 '90년부터 방재전문기관으로서의 발전을 지향하는 데 견인차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8개 전문분야의 방재전문인을 양성하기로 하였다. 협회는 모든 직원 각자에게 방재전문인이 되어줄 것을 요구한다.

화학·Plastic, 전기·전자, 기계·금속, 섬유·염색, 위험물·Gas, 고층건물, 소화설비 및 위험관리 등 8개 분야는 물론, 직원 각자가 자기의 소질에 맞는 분야를 골라서 그 전문분야만을 적어도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기량을 쌓고 발군의 실력을 연마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방재전문인이 되도록 자신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.

자신의 땀과 눈물로써 쟁취한 지식만이 완전히 자신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다. 우리 모두 현장에서 실무를 통하여 관찰하고 탐구해 나가자. 그리하여 협회의 점검기술 및 방재기술이 선진국 수준을 앞지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.